

다산포럼



송재소
성균관대 명예교수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이래 지금 한글은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이 한글을 통하여 서로 의사를 소통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젊은이들이 사용하는 외계어(外界語) 같은 인터넷 언어는 접어 두고라도, 분명히 한글로 표기되어 있지만 도저히 의사소통이 안 되는 말과 글이 많다.

영화 제목에서 이런 현상이 가장 두드러진다. 예를 들어 보자. ‘어드립트’ ‘서치’ ‘배틀십’ 등은 국내에서 개봉된 외국 영화의 제목인데 영화의 원제목(‘adrift’ ‘searching’ ‘battle ship’)을 영어 발음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다. (이중 ‘서치’는 원어 그대로 옮긴 것도 아니지만) 이를 보고 그 뜻을 알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왜 ‘표류’, ‘수색’, ‘전함(戰艦)’으로 번역하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겨우로 가정해서 ‘벌날’이란 제목의 우리나라 영화가 있다고 치자. 이 영화를 미국에서 상영할 때 ‘spring day’로 표기하지 않고

‘어드립트’ ‘서치’ 와 ‘독전’

‘bomnal’로 표기하는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이창동 감독의 영화 ‘시’를 ‘poetry’가 아닌 ‘si’란 제목으로 상영하는 데 동의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 다.

뜻을 알 수 없는 영화 제목들

우리는 외래어도 아닌 외국어를 무분별하게 남용하고 있다. 영화의 제목은 그 영화의 얼굴이다. 적어도 제목은 영화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거나 내용을 암시하는 것이어야 한다. 영화 제목을 ‘원스어폰어타임인베니스’ 따위로 다는 것은 영화를 보려는 관객을 우롱하는 것이고 나아가 한글을 파괴하고 학대하는 행위이다. 영어 원문을 병기하는 경우는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냥 한글로만 표기 한 경우가 많다. 앞의 영화 제목도 ‘once upon a time in Venice’란 영어 제목을 직직할 수 있을까? ‘어느 날 베니스에서’ 또는 ‘그 옛날 베니스에서’ 정도의 제목을 붙여 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나라 영화 제목도 마찬가지로 시나비스외벽에 ‘독전’이란 영화 광고를 본 적이 있다. 도대체 저게 무슨 뜻일

까? 독화살(毒箭)일까, 아니면 전쟁을 독려하다(督戰)일까... 분명히 한글로 쓰여 있었지만 그 뜻을 알 수가 없었다. ‘독전’의 한자를 병기했으면 짐작할 수 있을 터인데 한자도 없다. 나중에 겨우 독한 전쟁(毒戰)이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영화사에서 ‘독한 전쟁’ 또는 ‘지독한 전쟁’이라 하지 않고 ‘독전’이라 했을 때에는 반드시 한자를 병기해야 한다. 물론 한글 전용 주의자들은 이 경우에도 한자 병기를 반대할 것이다. 한글 전용 주의자들에게 묻는다. “과연 이런 경우에도 한글로만 표기하는 것이 옳은가?”

지역의 유래 담고 있는 지명

인명이나 지명의 경우에도 그렇다. 나는 지하철 5호선을 주로 이용하는데 역 이름을 유심히 본다. 다행히 지하철에는 역명에 한자 표기가 있어서 지명의 유래 표기는 광고판에 없었다. ‘원스어폰어타임인베니스’란 제목을 보고 이 영화의 내용을 짐작할 수 있을까? ‘어느 날 베니스에서’ 또는 ‘그 옛날 베니스에서’ 정도의 제목을 붙여 주면 얼마나 좋을까.

‘오목교’(梧木橋)역을 지날 때는 이곳에 오토나루로 만든 다리가 있었거나 오토나루가 많았던 곳을 짐작할 수 있고, ‘마곡’(麻谷)역에서는 옛날 여기에 삼나무가 많아서 한때는 ‘삼골’로 불렸으리라 생각했다. 한자 표기가 없으면 ‘오목교’를 ‘오목한 모양의 다리’로, ‘마

곡’을 ‘악마의 계곡’으로 오해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지명을 ‘참새길’이나 ‘돌길’ 등 순수한 우리말로 표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유래가 있다. 우리는 그 유래를 알 권리가 있다. 지방 국도를 지나다 보면 이정표의 지명 표기가 한글로만 적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그 지명의 유래를 알고 싶은 우리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다.

최근 불교 중앙총회에서 학력 위조, 사유 재산 은닉 등의 혐의로 탄핵당한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의 경우에도 ‘설정’의 한자가 병기되어야 한다. 일반인의 이름도 그렇지만 특히 스님들의 범명에는 깊은 뜻이 있다. 왜 범명을 ‘설정’으로 했는지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권리가 있다. 그냥 한글 ‘설정’만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세종대왕이 창제한 거룩한 한글을 우리 국민이 사랑해야만 한다. 시나비스에는 ‘속박에서 액티비티까지’라는 광고문이 붙어 있고, 어느 지상파 TV 방송국에서는 ‘마이 리틀 뉴스데스크’, ‘오늘의 가장 핫한 뉴스’란 제목의 방송이 나가고 있는데 한글로만 표기했다고 해서 이것을 한글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진정한 한글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 모두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社說

친환경 농산물 좋지만 비싼 가격이 문제다

국내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시장 규모도 커지고 있지만 출하량과 재배 면적은 되레 줄거나 정체 상태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의 선호도는 높지만 비싼 가격 때문에 구입을 꺼린다는 점에서 가격 지지 및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절실하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이 최근 발표한 ‘국내의 친환경 농산물 시장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친환경 농산물 출하는 전년 대비 10% 이상 감소했다. 곡류(33.8% ↓)가 가장 크게 줄었고, 채소류(28.0% ↓)와 특용작물(26.7% ↓)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유기합성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무농약 농산물이 크게 줄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 면적도 지난 2012년 12만7100ha에서 지난해에는 8만100ha로 줄어들었다. 다행히 전체 인증 면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농도 전담은 지

난해 6.7%가 늘어 4만3000ha에 이르렀다. 하지만 국내 친환경 농산물 시장 규모는 올해 1조 7853억 원에서 연평균 5.8%씩 성장해 2025년에는 2조 136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농가의 수익 증대를 위한 지원과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농민들은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데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일반 농업보다 비싼 생산비와 재배 기술, 판로 문제를 꼽고 있다. 이를 보완하려면 직불제도를 통해 생산 비용 격차를 보전해 주고 다양한 영농법과 보다 저렴한 친환경 농자재를 개발해 적극 보급해야 할 것이다.

소비자 역시 일반 농산물에 비해 가격이 비싸 쉬이 구매하지 못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생산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학교나 요양원, 군부대, 병원 등의 공공 급식에 친환경 농산물 공급을 확대하고 수출을 늘리는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할 것이다.

평양 정상회담 남북한 공동 번영의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이 115일 만에 오늘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난다. 벌써 세 번째 만남이다.

하지만 이번 만남은 지난 두 번의 만남과는 달리 비핵화에 대한 성과를 내야 한다는 점에서 그 분위기가 결코 가볍지 않다. 문 대통령은 이번 회담의 목표로 ‘남북한 긴장과 무력충돌·전쟁의 공포 해소’ ‘비핵화를 위한 북미대화 촉진’으로 꼽았다. 미국이 요구하는 핵시설 신고 리스트와 북측이 요구하는 종전선언 간 빅딜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종전선언을 연내에 달성하기 위해선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비핵화 협상을 재가동시켜야만 한다.

따라서 문 대통령의 중재 역할이 보다 중요해졌다. 정치권에서는 ‘북한의 핵 리스트 단계적 제출’, ‘핵시설 신고를 위한 실무준비 완료 단계에서 종전선언 추진’ 등 다양한 방안이 중재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허심탄화한 대화’를 통해 미국과 북한의 서로 다른 요구 사이에서 어떤 ‘접점’을 찾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2박3일 동안의 정상회담 최대 이슈는 비핵화와 종전 회담을 필두로 한 평화 체제 구축이지만, 남북한 경제·사회·문화·예술·종교 등 부문별 남북 교류도 중요하다. 이번 방북단에 비정차권 인사들이 대거 포함된 것은 다양한 방면의 남북 교류를 추진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남북의 활발한 교류 협력은 한반도에 평화 정착을 앞당기는 역할을 할 것이다. 다방면의 교류가 상시화 단계에 접어들어야 남북 화해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 특히 경제 협력은 우리 남측에도 새로운 기회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북한 내 인프라 구축에 남측 기업들이 참여하게 될 때 경제 효과는 매우 클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이 남북한 공동 번영으로 한반도의 운명을 바꾸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無 等 鼓

얼마 전 친구들과 모임에서 “외로운 대지의 깃발 휘날리는 이념의 땅~”으로 시작하는 노래를 부른 일이 있다. 제주 4·3 사건을 다룬 ‘잡들지 않는 남도’(안치환 작사, 곡)란 노래다. 그 노래가 머리에 남은 까닭일까. 지난 주말 제주도를 방문했다가 처음으로 제주시 명림로에 있는 제주 4·3 평화공원을 찾았다. 이곳은 4·3 사건으로 인한 제주도 민간인 학살과 처절한 삶을 기억하고 추념하며, 화해와 상생의 미래를 열어 가기 위한 평화인권기념공원이자, 지난 2000년 ‘제주 4·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

법’ 공포 이후 건립이 추진돼 2008년 3월 개관했다고 한다. 4·3사건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 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다. 희생된 주민 수만 2만~3만여 명이나 된다. 한국 현대사에 있어 한국전쟁 다음으로 많은 희생자를 낸 사건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당시 미군정과 이승만 정권 등 국가 권력이 무고한 주민을 희생시킨 사건이란 점에서 5·18

이 아니라, 건물의 특성에 맞는 짜임새 있는 소방 계획이 기초가 되고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상황 대처 능력이 갖추어져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광주제일병원의 관계인들은 안전에 대한 기초와 기본에 충실했다. 그들의 노력은 화재 초기에 발 빠른 대처로 이어졌고 대형 참사를 막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러나 한국광 일각에서는 4·3사건을 여전법' 공포 이후 건립이 추진돼 2008년 3월 개관했다고 한다. 4·3사건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 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다. 희생된 주민 수만 2만~3만여 명이나 된다. 한국 현대사에 있어 한국전쟁 다음으로 많은 희생자를 낸 사건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당시 미군정과 이승만 정권 등 국가 권력이 무고한 주민을 희생시킨 사건이란 점에서 5·18

제주 4·3사건

이 아니라, 건물의 특성에 맞는 짜임새 있는 소방 계획이 기초가 되고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상황 대처 능력이 갖추어져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광주제일병원의 관계인들은 안전에 대한 기초와 기본에 충실했다. 그들의 노력은 화재 초기에 발 빠른 대처로 이어졌고 대형 참사를 막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러나 한국광 일각에서는 4·3사건을 여전법' 공포 이후 건립이 추진돼 2008년 3월 개관했다고 한다. 4·3사건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 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다. 희생된 주민 수만 2만~3만여 명이나 된다. 한국 현대사에 있어 한국전쟁 다음으로 많은 희생자를 낸 사건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당시 미군정과 이승만 정권 등 국가 권력이 무고한 주민을 희생시킨 사건이란 점에서 5·18

청춘특·독



이효빈
동신대 디지털콘텐츠학과

올해로 스무살. 나는 현재 대학교 1학년이다. 바로 1년 전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이었다. 그 3년 간의 내 고등학교 학창 시절 이야기를 해볼까 한다. 고등학교는 입학하자마자 중학교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라는 걸 느꼈다. 아침 8시까지 등교해서 밤 10시에 끝나고, 기숙사에 가면 다시 11시까지 자율학습을 해야 했다. 그야말로 책바퀴 도는 답답한 하루의 연속이었다.

2학년 때는 정말 힘들었다. 밤늦게까지 하는 수업과 자습, 나에게 쓸 수 있는 시간들을 모두 포기하고 그저 공부만 해야 한다는 게 정말 힘들고 괴로웠다. 주말에도 학교에 가거나 기숙사에서 자습

오늘의 고등학생들에게

을 해야 했다. 정해진 틀에서 움직이며, 나를 제대로 돌볼 시간이 없다 보니 신경질과 짜증이 늘어났다. 스트레스를 풀 길은 밀가루 음식을 먹는 것 말고 없었다. 돌아보면 그때의 나는 조율증도 조금 있었던 것 같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됐을 때 나를 위해 결단을 내렸다. 부모님과 다소 마찰이 있었지만 결국 기숙사를 나왔다. 공부는 둘째 치고 내 자신이 더 이상 견뎌내지 못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기숙사를 나오자 그나마 조금일지라도 나를 위해 쓸 수 있는 시간이 생겼다. 주말엔 시간이 남아 스스로 복습하는 습관도 생겼다. 그동안 못했던 취미생활도 틈틈이 했다. 그야말로 숨통이 트인 기분이었다. 신경질과 짜증이 줄자, 점차 내가 행복해지고 더불어 주변도 평온해짐을 느낄 수 있었다.

이때 어떤 경우라도 자신을 위해 쓸 시

간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공부에 전념할 시기에 소중한 깨달음이 있었다.

수험생의 시계는 더디면서도 빨랐다. 어느 새 가을 수시 모집 시기가 됐다. 다른 친구들이 원서를 쓰고 면접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나는 그제서야 ‘내가 하고 싶은 게 뭐지?’하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 가장 중요한 학과 선택조차 정하지 못한 혼란스러운 상태였다. 사실 그년부터 어렵게 생각하고 싶었던 것들은 있었지만 말로 내뱉지는 못했다. 입 밖으로 내보낸 순간, 나 혼자만 아니라 모든 평가가 받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거긴 너한테만 어울릴 것 같은데”, “좀 더 편한 일 두고 왜 그런 걸 하려고 해?”와 같이 누군가에게 평가를 받는다는 건 늘 불편하고 두려운 일이었다. 그것을 깨달은 나는 이후 누군가를 평가하는 걸 한층 조심하게 됐다.

상황하게 늘어놓은 내 고등학생 시절

영웅바라기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유

역으로 무기가 살리게 되었다. 이러한 심리가 반영되어 언제부터인지 소방관을 상상 속의 영웅인 슈퍼맨이라 부른다. 소방관이 슈퍼맨이 아닌 것은 자명한 사실이지만, 재난과 재해에 지친 국민들은 소방관이 슈퍼맨이 되어 주길 바라는 간절한 열원에 그리 표현했을 것이다.

지난 9월 5일 광주 남구에 위치한 광주제일병원 건물 지하에서 예기치 못한 화재가 발생했다. 언론 매체가 들쭉거릴 정도의 대형 화재도 아니었고 검은 유독 가스로 하늘을 매우는 급박한 화재 현장도 아니었지만, 필자는 우리가 그토록 갈망했던 슈퍼맨을 볼 수 있었다.

화재가 난 병원 건물에는 입원 환자, 의료진 등 126명이 상주하고 있었으며 병원 특성상 거동이 불편하거나 자력으로 탈출이 불가능한 환자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없었다.

“슈퍼맨 덕분일까?” 그날 내가 본 슈퍼맨은 우리가 기대하던 소방관이 아니라 병원 내 직원으로 구성된 자위 소방대였다. 자위 소방대는 건물의 관계인으

로 조직된 자체 소방대이며, 특정 소방 대상물의 소화·통보·피난 등의 자체적인 훈련을 실시하여 화재를 예방하는 민간 조직이다. 이는 소방시설법(약칭)에도 명시된 안전 관리를 위한 관계인의 의무이기도 하다.

그들은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거나 하늘을 날며 사람들을 구하는 만화 속 화려한 영웅의 모습을 보여준 것은 아니다. 평소 훈련한대로 화재가 발생하자 침착하게 소화기를 사용하여 대형 화재로 확대되는 것을 차단했고 유독 가스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초기 화재 진압과 동시에 병원 환자들의 대피를 유도했다.

소방관이 도착했을 때에는 대부분의 환자는 건물 밖으로 대피한 상태였으며 화재는 초기 진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후자는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는 것을 너무 지켜세우는 것이 아니냐?”라는 반문을 제기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은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초기 대응능력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

기 고



문기식
광주남부소방서장

어릴 적 위인전을 통해 영웅들의 이야기를 보고 들어왔던 우리는 어른이 된 지금도 영웅에 대한 동경심과 함께 그들의 존재를 끊임없이 열망한다. 여자아이들은 영웅과의 로맨틱한 만남을 꿈꾸었고, 남자아이들은 장난감 칼을 휘두르며 영웅 흉내를 내느라 하루가 모자랐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첨단과학의 발달과 넘쳐나는 정보로 인해 영웅의 입지는 좁아지고, 이제 우리는 한 시대를 풍미했던 역사 속 영웅보다 더 적극적으로 강력한 힘을 가진 상상 속에 슈퍼 히어로(Super hero)를 수입하여 그 공허함을 채우고 있다.

또한 영웅들의 필요성과 배경도 바뀌었다. 총과 칼을 겨누는 무력전쟁보다는 현실적인 화재나 자연재해와 같이 과학이나 기술적으로 한계에 다다른 영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국통 신청 배탈 안내)) 광고문의 062-222-9600					
편집국내선 편 집 부 220-0649	대표 FAX 문 화 부 220-0661	경 영 지 원 국 경 처 부 220-0632	222-4918 문 화 부 220-0661	경 영 지 원 국 경 처 부 220-0632	220-0515 문 화 사 업 국 220-0541
경 제 부 220-0663	여 론 매 체 부 220-0652	회 계 부 220-0664	경 영 지 원 국 220-0515 (FAX 222-8005)	문 화 사 업 국 220-0541 (FAX 222-0195)	경 영 지 원 국 220-0515 (FAX 222-0195)
사 회 부 220-0664	사 진 부 220-0693	체 육 부 220-0697	회 계 부 220-0692 (FAX 222-0195)	문 화 사 업 국 220-0541 (FAX 222-0195)	경 영 지 원 국 220-0515 (FAX 222-0195)
전 남 본 부 220-0642			디 자 인 실 220-0536	세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